

환경특사경 정주여건 개선 주력

익산시, 환경 법규 위반행위 대응... 오염 행위 감소 · 쾌적한 환경 조성 일조

익산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20년 전북도내 최초로 특사경을 도입해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환경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솜치 건수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시는 2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집계 81건, 정음 51건을 보였다.

위반행위는 분야별로 가축분뇨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53건,

대기 35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솜치 건수는 지난 2020년 67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68% 증가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솜치 건수가 연간 30여건이다.

올해 솜치 건수도 지난 8월 기준 58건으로 연말까지 1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지역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사경은 가축분뇨와 폐기물, 악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경 사범에 대한 직접

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하게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했다.

시는 환경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업체에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오염 행위 감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영세업체는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립도서관이 지역민들의 독서문화 향상과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서를 대폭 확충했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 맞춤형”

군산시립도서관, 지역민 맞춤 장서 대폭 확충

군산시립도서관이 지역민들의 독서문화 향상과 시민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서를 대폭 확충했다.

17일 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용자 희망도서와 다양한 분야의 신간도서, 기관추천도서 등 총 2만 7000여권의 장서를 구입했다.

도서 대부분은 지역 서점을 통해 구입해 도서관과 서점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독서할 수 있도록 전자책 1029권도 구입했으며,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소리책 · 점자책 · DVD · 큰글씨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를 지속해서 확보할 예정이다.

시민이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해 서점에서 새 책으로 빌려 볼 수 있는 희망도서비대출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확대 운영(월 3권~6권)해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도서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군산을 읽다’라는 특별 코너를 마련하고, 군산 관련 도서와 군산 작가들의 저서를 한데 모아 시민들에게 군산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도서관 정구영 과장은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 맞춤형 자료 비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지역작가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문화의 탄탄함이 이뤄지는 시립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문인단체 및 작가들과 상호협력의 기반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 · 확충해 대표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곤기자

‘어서와, 김장은 역시 익산이지?’

내달 26일 서동농촌테마공원 일원서 ‘2022 김장체험 한마당’ 개최

익산시는 11월 26일 서동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도시소비자와 지역농가가 상호 상생 · 협력의 정인 2022 김장체험한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어서와, 김장은 역시 익산이지?’라는 주제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가지 형태의 온오프라인 김장 체험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우선 체험 축제 현장에서 가족편의 단독 공간에서 윈스톱으로 쉽고 재미있게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가져갈 수 있다. 점심배추와 양념 키트로 받아오는 택배 방식(관내 지정일 가능)과 당일 비대면 드라이브스루로 현장 직접하는 수령 방식을 추가했다.

축제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

통 김장문화를 볼 수 있는 김장김치 문화홍보관,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참여하는 익산의 명물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빵 만들기, 달콤한 와플 만들기 체험 등 농촌체험관을 운영한다.

버무린 김장김치 맞춤형 따끈따끈한 고구마와 인절미 등 먹거리관 밑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 직거래관도 함께 열린다.

또한 파스한 감성을 자극할 제츠 · 포크 공연과 농촌마을 주민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농촌활력대회도 공동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장명인과 함께하는 내 입맛 맞춤형 김장김치 맛 평가단’ 참

여 및 우수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MZ세대 ·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유튜브 생중계 참여 이벤트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하며 익산몰(<http://iksamall.com/>)과 익산시농촌활력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iksancommunity>)에서 이달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63-861-0008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김장체험 한마당행사에 참여해 우리의 밥상을 책임질 김장 담그기가 힘든 과정이 아닌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가족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의회, 출산지원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자체 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금 일부를 상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 통합 지급 △출산축하금 조항 삭제 △제4조 제1항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변경 등이다.

송미숙 의원은 “다문화 가정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일부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유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실제 양육자인 어머니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실제 지급 사례를 지속해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지원금이 상향된 것을 환영한다. 향후 산후조리원 문제도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방안을 찾아 다양한 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원금 변경과 관련해 불쾌와 냉채 인상 기준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며 “비용을 다시 추계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등 타 부서 지원현황을 요구했다.”

박광일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급액 상향 등을 보완해 수정가결로 통과했다”라며 “회의와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고 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시민배심원단 40명 위촉

익산시는 17일 제차 시민배심원 회의를 열고 민선공약 평가 시민배심원단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시민들이 직접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 이행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로,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거주 시민 대상 무작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정현을 시장의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

부의 시민배심원제 교육, 분임 구성, 안전 선점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배심원단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14일 두 차례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익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약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 시장의 동반자와 관찰자로 성장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정된 공약사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강좌 차태일의 음악세계 열어

20일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7강좌가 열린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 제7강좌는 가수 남진의 ‘동지’, ‘나이냐’, ‘천년을 살아도’ 등, 차태일 작곡가를 초청해 ‘차태일의 음악세계’를 주제로 실시한다.

차태일 작곡가는 (주)태성음반 제작이사로 제10회 대한민국연예예술대상 수상, KBS 도전 주부가요스타,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또 가수 남진 송대관 강진 유지나 등 작곡가로 활동해 오며 수많은 많은 곡을 작곡해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음악을 통해 인생의 희노애락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차태일 작곡가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시민들이 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 시내 요양병원 코로나 방역 수칙 ‘양호’

군산 시내 요양병원이 변경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는 지난 4월과 5월 이틀동안 관내 요양병원 9개소에 대해 점검반을 구성해 변경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대상은 참사랑요양병원, 군산 원광효도요양병원, 군산 효자요양병원 등 9개 요양병원이다.

점검내용은 종사자 대상 접촉면회 및 외출 · 외박 사전교육 여부, 보호자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확인, 면회장소 확보 및 방역용품 구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 환경 관리 현황 등으로 9개 요양병원 모두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요양병원의 접촉면회가 가능해져 관련 사항을 점검하게 됐다”면서 “노약자 거주시설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